

연구소 탐방

홍삼의 미래와 신입사원의 역할

박수경 · 이윤지

KGC인삼공사 R&D본부 효능연구소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최근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다. 홍삼은 시대를 불문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켜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KGC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은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코로나바이러스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요즘, KGC인삼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홍삼은 물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GC인삼공사의 R&D본부는 총 5개 연구소로 나뉘어 있는데, 각 연구소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KGC인삼공사 R&D본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5개의 연구소는 각각 제품연구소, 분석연구소, 글로벌연구소, 화장품연구소, 효능연구소로 원료 재배부터 효능연구, 제품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와의 최전선 접점에 있는 제품연구소에서는 KGC인삼공사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정관장의 베스트셀러인 홍삼정부터 화에락, 홍

이장군 등 홍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과 비홍삼 일반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R&D의 분석 역량이 모두 모여 있는 분석연구소에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유해성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제품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유효성분의 분석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KGC인삼공사 제품의 자부심인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글로벌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다양한 정관장 제품에 대한 개발부터 등록까지 다양한 과정을 담당한다. 각 나라의 문화와 현지 사정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해 해당 국가의 법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KGC인삼공사의 화장품 브랜드인 동인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화장품연구소에서는 홍삼을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며, 이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효능을 지닌 화장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능연구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수이자 핵심요소인 효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며 홍삼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부터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발견, 안전성 이슈에 대한 대응 연구 등을 진행한다. 세포, 동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홍삼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KGC인삼공사의 효능연구소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소와의 소통을 통해 효능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소재의 개발은 제품화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능연구소의 관점에서만 소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제품연구소에서 제품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의 인식, 원료의 단가 등 다양한 요인을 소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최근 효능연구소와 글로벌연구소는 협업을 통해 서양권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홍삼농축액을 미국 FDI new dietary ingredient(NDI)로 인정받았다. ND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인체유해여부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홍삼이 NDI로 인정받음으로써 홍삼의 국제적 위상과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전문성을



연구소 전경



글로벌연구소

가진 연구소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능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 역시 효능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입사 이전인 대학원 때부터 효능 관련 기초연구를 해왔지만, 효능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새로이 느끼게 된 것이 있다. 먼저, 효능 연구는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소재의 효과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왜 좋은지, 안전한지 등을 소비자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받아온 신뢰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오로지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효능연구소에서는 효능연구 이전과 이후 단계에서의 여러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료의 수급이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개발된 소재가 제품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연구소, 제품연구소 등 타 연구소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타 사업부서와의 협업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이는 오히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미리 해결할 기회이다.

홍삼 섭취가 대장암 환자의 피로도를 개선시킨다는 결



분석연구소

과를 얻었던 연구 역시 홍삼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한 계기가 되었으며,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부분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신뢰를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홍삼 이외의 다양한 원료에 대해서도 표준화,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원료임에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와의 소통을 연구의 목표로써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효능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 효능연구소 근무 1년 차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KGC인삼공사 R&D본부도 긴장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현재 KGC인삼공사의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은 결국 홍삼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신입사원으로서 틀에 박히지 않은 자세로 홍삼, 더 나아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면 KGC인삼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직한 제품을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